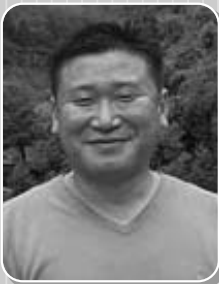


특 집 | 우리는 이런 도서관을 꿈꾼다

도서관은 양극화 해결의 첫발

세계적인 구조 언어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노암 촘스키가 유년 시절 도서관에 파묻혀 살았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다. 그는 자신을 키운 모든 것은 도서관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역사상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키운 동력은 책에 있었기에 촘스키의 경우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미국 대공황의 시기에 중세 언어학 연구자의 아들로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촘스키는 어려서부터 자본주의 미명하에 탄압받는 노동자들과 전쟁 포로인 독일인들의 강제 노역의 현장을 목격했다. 그 또한 그리 유복한 환경이 아니었기에 억압 받고 소외된 계층에 관심이 많았고, 이를 야기한 사회구조와 형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갖는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학교와 그가 속한 사회 어느 곳에도 없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싶었지만 사회적 소외 계층에 속한 그에게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을 찾았다. 그리고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었다. 책이라는 스승을 통해 그는 시대와 역사와 세계를 읽는 자신의 정체성과 그 실천방향을 만나게 된 것이다. 훗날 이는 촘스키를 한 명의 위대한 언어학 학자를 넘어, 문명비평과 정치비평 그리고 사회구조론 교육론 등의 우리 학문 전반에 뛰어난 진보적 좌파 학자로 평가받는 힘이 되었다. 어쩌면 한 명의 뛰어난 언어학자로만 기억될 인물이 20세기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점에서 촘스키는 '살해된 모차르트'는 아니었다. '살해'하려는 썩은 제도



한성봉*

* 한국출판인회의 독서진흥위원장, 도서출판 동아시아 대표, dongasia@unitel.co.kr

와 열악하고 불평등한 환경보다 훨씬 위대하고 강인한, 책이라는 지킴이들이 도서관에서 그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에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계급적 양극화는 이미 도려내기 힘들 정도로 깊은 환부가 되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정부는 부랴부랴 각종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각종 사회 안전망과 제도 등을 고쳐 그 간극을 메울 모양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이다. 부모의 신분과 계급이 교육의 양극화에 극명하게 드러나,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처음부터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지금의 교육 제도는 부모의 신분을 그대로 물려받는 중세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 공부하고 싶어도,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환경적 대물림에 손발이 묶여 있는 계층의 아이들에게 촛스키를 기대할 수도 없다. 나아가 만약 그 가운데 천재성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모차르트라는 천재성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살해한 공범이 되는 것이다.

필자는 그 여러 대안의 하나로 도서관을 떠올린다. 도서관은 경제적 이유로 구하지 못하는 좋은 스승들이 가득한 공간이며, 부족한 문화적 체험을 메우는 아름다운 상상력으로 가득 찬 공간이며, 시험문제의 확실성과 단선성에서 보다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까운 거리에, 언제나 열려 있고, 방대한 도서가 완비된 도서관이 있다면, 경제적 사회적 이유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도 스스로의 노력에 따라 질 높은 교육의 문호가 열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500여 개에 이른다는 공공도서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재정이 지방자치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 관심이 있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은 그나마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은 가히 흉물스럽기까지 하다. 학교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 입시가 최우선인 각종 학교의 도서관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기 일쑤이며, 도서구입을 비롯한 예산은 턱없이 모자라 학생들이 변변히 읽을 만한 책 몇 권 없이 오래된 책의 박물관 같다. 또 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맡을 사서교사는 전국을 극소수이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부쩍 높아졌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미약하나마 도서관 예산을 늘려가고 있고, 작년 연말에는 사서교사를 154명 충원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도서관담당교사의 모임과 학도넷 같은 도서관 네트워크 운동이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며, 출판계도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는 도서관이 문서나 책자의 수집과 보존이라는 기능과 교육적 기능과 함께 출판진흥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판계는 학교도서관 운동을 독서진흥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작년에 학도넷과 함께한 <책의 저자가 학교에 왔다> 행사와 요즘 중점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또한 이 일환이다.

하지만 문제는 공공도서관이다. 앞서 열거한 공공도서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예산 및 관리가 중앙정부에 이양 되도록 사회적 환기를 해야 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 인프라 혹은 문화 인프라의 근간이 되는 공공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을 정부가 지자체 또는 각 교육청에 떠넘긴다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업무태만이다. 그래서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출판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큰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책을 사랑하는 각종 단체와 보다 큰 사회적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